

9-22-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이사야 64:1-8

말씀제목: 하늘 문이 두 번 열리게 될 때 일어날 일들

성경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하나님과 300 년 동안 동행하던 에녹은 하늘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창 5:22-24, 히 11:5). 선지자 엘리야는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왕하 2:11).

앞으로 대 환란이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자신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 오른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네 생물들과 이십사 장로들을 보았으며 대 환란이 오게 될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대 환란 중에 지상에 일어날 심판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계 4:1-4)

머지 않아 지상에 대 환란이 오기 직전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처럼 휴거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이때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신비로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이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1-58)

선지자 이사야는 대 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한 번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시는 광경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 오 하나님이며,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시 64:1-4)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을 통하여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고전 2:9-10)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결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사 64:5-8)

사도 요한도 하늘 문을 여시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회개치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살로 배를 채우더라.”(계 19:11-16, 19-21)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회복되고 아마겟돈에서 최악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흠으셨던 이가 그들을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떼와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혼은 물 댄 정원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렘 31:10-12)

아멘! 할렐루야!